

로동당시대 인민의 행복과 리상의 높이를 보여주는 건축물들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초고층살림집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풍치수려한 원자핵의 돌레를 도는 전자의 자리길 대동강기슭을 따라 시원스럽게 뻗어 올린 리상시기는 독특한 형태미와 조형미를 갖춘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있다. 53층초고층살림집은 2015년에 완공된 53층초고층살림집은 되었다.



려명거리의 70층초고층살림집

에너지기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의 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의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이다. 70층초고층살림집의 기반층에는 상점, 식당, 문화시설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70층초고층살림집의 주인들은 주체



송화거리의 80층초고층살림집

2022년 4월에 완공되어 동평양의 집을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는 활짝 피어있는 송화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송화지구엔 천지개벽을 펼친 송화거리엔 80층초고층살림집이 거연히 솟아있다. 연건평이 16만여㎡인 80층초고층살림집의 세대수는 근 900세대에 달한다. 본사기자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행복한 때가정

10여년만에 대지를 확보한 특류영예군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이 콩기름처럼 흐르는 공화국에서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소행이 어디서나 활짝 꽃피어가고있다. 얼마전 우리의 만년 평성시 양지동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송만길은 다시는 일어설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대지를 확보하게 된 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평범한 녀성이었다. 10여년전 송만길은 군사복무중 뜻밖에 부상을 입고 다시는 걸을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몇해후 그의 가정에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에게는 송만길에게 기쁨과 행복, 희망의 전부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울먹이며 말하였다. 「다른 애들은 명철날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원에 댕 다녀왔는데...」 그 순간 송만길의 가슴은 아찔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하였다. 송만길의 집을 때없이 찾아 영예군인가정의 크고작은



송만길 (가운데)과 김명심녀성 (오른쪽에서 두번째)

일은 제 집일처럼 돌봐주던 그는 그날도 부식을 안고 찾아갔다 그 말을 듣게 되었다. 그날 밤 김명심녀성은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때부터 의사와 함께 송만길의 집을 찾은 김명심녀성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다. 그렇게 한해 또 한해가 흐르던 어느날 그가 오래동안 수소문하여 먼곳에 있는 다른 교장의 의사까지 데리고 왔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송만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올랐다. 김명심녀성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하지만 자기 병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있던 그는 치료를 거부하였다. 그러는 그의 귀전에 김명심녀성의 정경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자신을 위해서보다 아들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의 말에서 송만길은 다시는 걸을수 없었던 생각을 떨쳐버리게 되었다. 험치 않았다. 치료받기가 힘겨워질 때면 마음속에 동요가 일군 하였다. 하지만 다른 동네로 이사간 후에도 매일같이 자기를 찾아와 아글라글 애쓰며 정성을 다하는 김명심녀성의 모습앞에서, 희망과 기대를 안고 감격하는 자기의 두다리를 쓸어보곤 하는 그 뜨거운 눈빛을 보면서 나약해

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던가. 언제부터인가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길을 정성껏 닦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돌 한 개라도 있을세라 길바닥을 쓸고 또 쓸며 어머니는 식구들에게 품뻐어 말했다. 삼륜차를 탄 둘째가 어느때나 불편 없이 들어설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고향집에 제발로 걸어들어섰던 것이다. 「이 어머니도 어찌지 못한 너를 일으켜세워준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니. 넌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러는 어머니에게 송만길은 말했다. 「어머니,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제도복입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이 저에게 은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후날 송만길은 김명심녀성이 방역부문에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훌륭한 녀성이란것을 알게 되었다. 온 나라가 덕과 정으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조선이다.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 사회주의대 가정에서 서로 돕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끝없이 꽃피어갈 것이다. 주영철

《장애자로 사느니 저세상에 가는게 낫다》

남조선에서 장애자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

몇해전 남조선강원도에서 사는 한 청년이 다리에 심한 통증을 입었다. 허나 누구도 통증을 입은 그를 돌봐주기는커녕 관심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 막대한 처지에 놓인 청년은 자기의 기막힌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중신병신이 되어 불쌍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를 이경으로 만든 이 사회에 대한 환멸과 원망이 너무 심하니 저절로 죽고 싶다.」 이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들은 생전에 어떻게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려고 모지름을 써보았지만 차레진것은 나날이 늘어나는 세금과 빚더미, 장애로 인한 사회적질서와 차별뿐이었다. 실상가상으로 세금을 물지 못해 전기와 난방은 물론 수도물까지도 끊긴지 오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들은 끝내 삶을 포기하는 길을 택하였던것이다. 장애자부부의 죽음은 인간의 따뜻한 정이란 찾아볼수 없는 비인간적인 남조선사회체제가 강요한 피할수 없는 운명이었다. 윤석열역적매당의 반인민적 통치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장애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온갖 학대와 차별행위가 세계최악을 기록하고있다. 마땅히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자들이 초보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삼륜차를 타고 거리에 떨쳐나 시위를 벌이고있는 모습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오직 돈과 권력에 의해 규제되는 썩고 병든 사회라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